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3-제8차
안건유형	심의

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(2023~2027년)

2023. 9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〈 요약 〉	i~iv
I. 추진배경	1
II. 현황진단	2
III. 추진방향	6
IV. 추진과제	8
1.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	8
2. 강점을 살린 우수인재 양성	11
3. 밀집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	13
V. 추진체계	15
[붙임] 이주배경학생 관련 주요통계	19

요약본

[요약]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

□ 추진배경

- 다문화 교육정책은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공존을 위한 교육정책이자, 우리사회의 다양성·포용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,
- 사회통합에 기여하고,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며,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, 사회·경제·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

□ 현황진단

① 지난 10년간, 이주배경학생 수는 약 2.7배 증가

- 초중고에 재학중인 이주배경학생은 '14년 약 6.8만명(전체대비 1.1%)에서 '23년 약 18.1만명(3.5%)으로 빠르게 증가

* 이주배경인구: ('20년) 약 218만명(총인구의 4.2%) → ('40년^{전망}) 약 323만명(6.4%) (통계청, '22년)

- 부모 출신국적을 살펴보면, 베트남·중국(한국계 포함)이 약 63%를 차지하고, 다음 필리핀, 일본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 국가

* (베트남) 32.1% (중국) 31.0% (필리핀) 9.1% (일본) 4.2% (기타) 23.6%

②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학생이 약 8.6배 증가

- 이주배경학생 증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지난 10년간 외국인 학생 약 8.6배, 국내출생 2.3배, 중도입국 1.9배 증가

- 외국인, 중도입국은 한국어능력이 부족하므로, 앞으로 다문화 교육 정책에서 한국어교육 정책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

구분	외국인	국내출생	중도입국	계
2014	4,706	57,498	5,602	67,806
2023	40,372	129,910	10,896	181,178

③ 지난 3년간, 다문화 밀집학교*는 약 2배 증가

* 전체학생 100명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이 30%이상인 학교

- 다문화 밀집학교는 '19년 38개교에서 '22년 71개교*로 증가하였으며, 학교의 약 44%가 5개 시군구*에 소재

* 이주배경학생 비율 (90%이상) 1개교 (70~90%) 6 (50~70%) 9 (30~50%) 55

* (경기 안산) 8개교 (경기 시흥) 8 (서울 구로) 5 (서울 영등포) 5 (충남 아산) 5

④ 학교인프라가 부족하고,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 필요

- 외국인·중도입국학생 대비 **한국어학급 수용률은 10.3%**(학급당 10명 기준), **다문화언어 강사1인당 학생수는 무려 74명**

* '23년, 외국인·중도입국 학생 51,268명 / 한국어학급 527개 / 다문화언어강사 689명

- 생활한국어 외에 **교과수업 맞춤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·교재 등 부족**

* (현장의목소리) “한국어교육과정(KSL)에 맞춘 교재 등을 활용해 한국어를 학습해도, 정작 교과수업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한국어를 몰라서 수업에 적응이 힘듭니다.”

- 이주배경학생은 전체학생 대비 **학업중단률이 높은 편***이며, **대학 진학률은 40.5%**에 불과하여 전체('21년, 71.5%)대비 크게 낮은 편

* '21학년도 학업중단률 비교 : <전체학생> (초) 0.58 (중) 0.54 (고) 1.55
<이주배경> (초) 0.68 (중) 0.78 (고) 2.05

□ **비전 및 정책방향**

비전	이주배경학생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								
3대 정책 방향	<table border="1"> <tr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식 전환</th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취약·소외계층 → 공동체 일원</td></tr> </table>	인식 전환	취약·소외계층 → 공동체 일원	<table border="1"> <tr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교부담 경감</th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교단위 대응 → 지역중심 지원</td></tr> </table>	학교부담 경감	학교단위 대응 → 지역중심 지원	<table border="1"> <tr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주형 정책</th></tr> <tr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순 적응지원 → 우수인재 양성</td></tr> </table>	정주형 정책	단순 적응지원 → 우수인재 양성
인식 전환									
취약·소외계층 → 공동체 일원									
학교부담 경감									
학교단위 대응 → 지역중심 지원									
정주형 정책									
단순 적응지원 → 우수인재 양성									

□ 추진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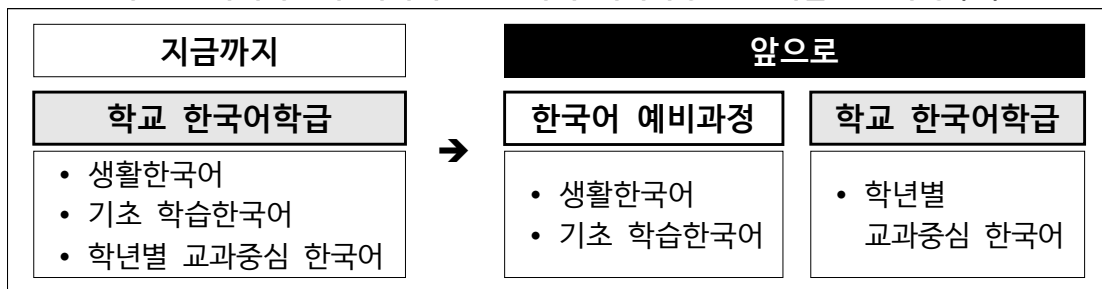
①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

◇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교·교원의 부담경감,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추진

- (지역중심 한국어 교육체계) 한국어능력이 교과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 대상, 지역거점 「**한국어 예비과정**」(3개월~1년)* 운영

- * 위탁교육 형태로, 원적교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 밖 기관에서 교육받고 출석인정 가능
- *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,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지역('22년, 33개시군구)부터 우선추진

학교 한국어학급과 지역거점 「한국어 예비과정」 간 역할분담 구상(안)



- (지역대학, 기관 연계) 지역대학 내 '**한국어 집중캠프**'를 확대*하고, 지역 **가족센터** 활용한 읽기·쓰기 등 기초학습 지원 확대

- * '24년, 50개 초중고교부터 시범추진 → '27년, 150개교까지 확대 운영

- (학교인프라 확충) 한국어학급을 **지속 확대**하고('23, 527학급 → '24, 600학급), **지원인력 확충**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추진*

- * 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(법무부, 약 221명), 결혼이민자 강사(여가부, 약 450명) 등

- (AI 활용) AI 디지털교과서에 **다국어번역 기능**을 지원*하고,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AI기반 **한국어 학습관리시스템(LMS)** 개발·운영('24년~)

- * ('25년) 수학·영어·정보·국어(특수교육) 교과 우선도입 → ('28년까지) 단계적 확대

② 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린 우수인재 양성

◇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고, 자기 강점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

- (장학금) **이중언어 등 강점**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에게 대학졸업시까지 매월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'**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**' 신설('24년~)

- * 저소득층 중 선발하고, 정부+기업이 협업하여 대폭지원 추진(약 100~200명 규모)

- (다문화 강점개발 학교) 이중언어, 외국문화이해 등 다문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**정책학교**를 운영('24년, 교육부 지정 200개교)
 - *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중언어 등 외국어교육에 강점을 가진 학교로 운영하여, 이주배경 학생뿐만 아니라, 학교의 모든학생이 이중언어 학습,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할 수 있게 지원
- (직업교육) 한국어교육, 외국어수업·교재 등을 활용하는 **다문화 특화 직업계고**를 확대하고, **전문대학**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산
 - * 다문화 특화 직업계고 : ('24년) 10개교 → ('27년 목표) 20개교
- (진로교육) 다양한 전공을 가진 **대학생 멘토링**을 확대*하고, 다문화 맞춤형 **진로체험처** 확대, 찾아가는 **진로콘서트** 운영 등 추진
 - * 대학생 멘토링(멘토 수) : ('23년) 4,000명 → ('24년) 8,000명

③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

◇ 다문화 밀집학교 인프라를 확충하고, 지역중심의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구축 추진

- (밀집학교 여건개선) 다문화 밀집학교(전체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30% 이상) 대상으로 **한국어 학급 등 인프라 확충**을 집중지원('24년~)

구분	한국어학급	지원인력 등	방과후과정
일반학교	필요시 설치 권장	-	-
다문화 밀집학교	설치 적극지원	한국어학급당 1명 배치지원	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지원

- (지역 내 다문화교육정책 허브 구축) 교육지원청에 **다문화교육지원 센터***를 설치하고, 지역자원과 학교 간 **매칭, 학부모교육, 학습자료** 등 지원
 - *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부터 우선설치 추진('24년, 5개 시범운영)

- (실태조사 실시) 지역·학교가 다문화밀집에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**장래추계 포함한** 실태조사 추진('26년 발표)
 - * 행안부, 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력, ('24년) 연구 → ('25년) 조사 → ('26년) 발표

□ 향후계획

- **법적근거** 마련(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, 현재 법사위 상정·의결('23.9.1.))
- 과제별 세부안 수립을 위한 **전문가 씽크탱크** 구성·운영('23.하반기)

전체본

I. 추진배경

◇ 다문화 교육정책은 **사회통합, 인적자원의 질 제고, 글로벌 중추국가**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**미래 국가전략**

○ (사회적) 이주배경인구* 218만명('20년), **학생 18만명**('23년) 시대, **사회통합**을 위한 다문화 교육정책의 중요성 증대

* ('20년) 약 218만명(총인구의 4.2%) → ('40년^{전망}) 약 323만명(6.4%) (통계청, '22년)

- 특히, 우리사회의 **다양성**을 높이기 위해,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**포용적** 인식형성이 중요

○ (경제적) 생산연령인구 급감 상황에서,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**양질의 교육**을 통해 국가 **인적자원의 질 제고** 필요

* 생산연령인구 : ('20년) 약 3,700만명 → ('40년^{전망}) 약 2,900만명(21.6%↓)
생산연령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비중 : ('20년) 약 4.7% → ('40년^{전망}) 약 8.6%

○ (국제적) 우리나라는 수출시장 점유율 세계 6위('22년 기준) 등 **글로벌 중추국가**로서, 국격에 맞는 **글로벌 교육정책** 필수

* “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·위상에 부합하는 정책 필요” (대통령말씀, '23.5.17.)

- 다문화 교육정책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**한국의 위상**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정책이므로,

- 이를 우리교육의 **글로벌화**를 견인하고, **한국이 동아시아 교육 허브**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까지 활용할 필요

【참고】 교육정책에서 이주배경학생(다문화학생)의 범위?

○ 교육정책 대상으로서의 이주배경학생은 **내국인/외국인**으로 나뉘며, 내국인은 다시 출생지에 따라 **국내출생/중도입국**으로 나눌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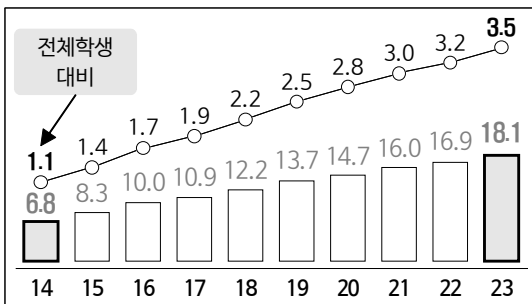
내국인		외국인
국내출생	중도입국(외국출생, 한국체류)	

II. 현황진단

1] 지난 10년간, 이주배경학생 수는 약 2.7배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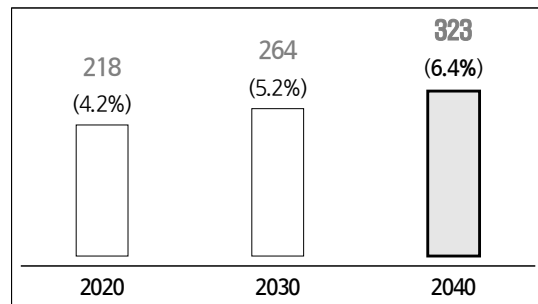
- 초·중고 이주배경학생 수는 '14년 약 6.8만명(전체대비 1.1%) 이나, 지속증가하여 현재 '23년 약 18.1만명(전체대비 3.5%)
- 이주배경인구가 '20년대비 '40년에 1.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, 이주배경학생 수 증가도 지속될 전망

이주배경학생 추이(만명, 전체학생 대비 %)



(교육부, '23년)

이주배경인구 전망(만명, 총인구 대비 %)



(통계청, '2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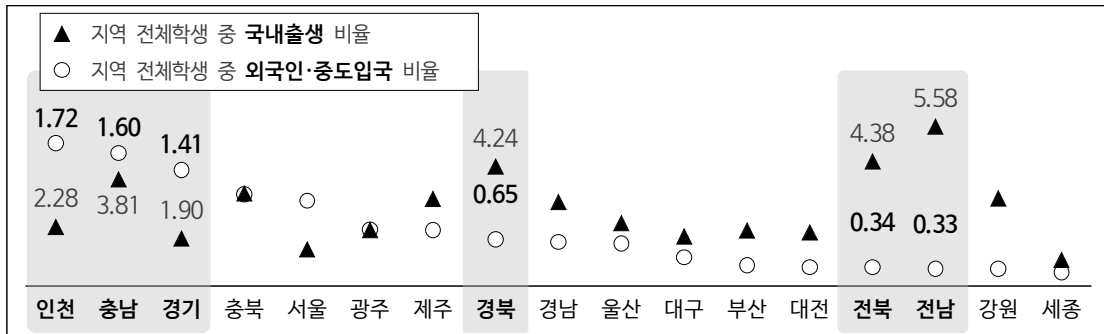
- (지역별) 이주배경학생은 경기, 서울에 가장 많이 몰려*있고, 지역 내 전체학생 대비 비율**은 전남, 충남이 가장 높음

* (경기) 4.9만명(27%) (서울) 2만명(11%) (경남) 1.3만명(7%) (충남) 1.3만명(7%) 등

** (전남) 5.9% (충남) 5.4% (경북) 4.9% (전북) 4.7% (충북) 4.5% 등

- 인천, 충남, 경기도는 외국인·중도입국 학생의 비율이 높고, 전남, 전북, 경북은 국내출생 학생의 비율이 높음

지역 내 전체학생 대비 이주배경학생 구성별 비율(%) (교육부, '23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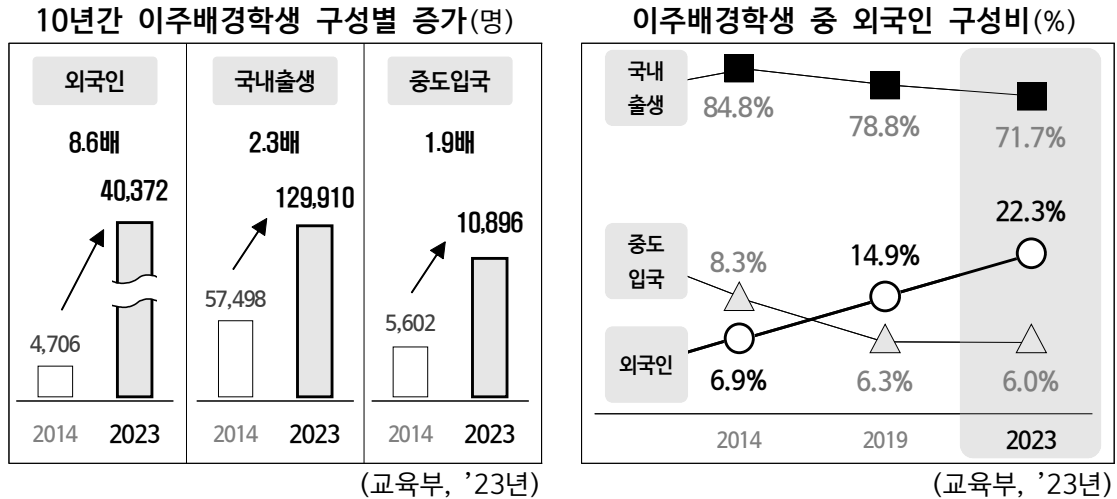


- (부모 출신국적별) 베트남·중국(한국계 포함)이 약 63%를 차지하고, 다음 필리핀, 일본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 국가

* (베트남) 32.1% (중국) 31.0% (필리핀) 9.1% (일본) 4.2% (기타) 23.6%

②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학생이 약 8.6배 증가

- 이주배경학생 증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지난 10년간 **외국인학생 약 8.6배, 국내출생 2.3배, 중도입국 1.9배** 증가
 ⇨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외국인학생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, **한국어교육이 다문화 교육정책의 결정적 요소**



③ 지난 3년간, 다문화 밀집학교*는 약 2배 증가

* 전체학생 100명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이 30%이상인 학교

- '22년 기준, 전국의 다문화 밀집학교는 **71개교**이며,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**90% 이상인 학교**도 존재

* ('19년) 38개교 → ('20년) 47개교 → ('21년) 55개교 → ('22년) 71개교

* '22년 71개교 중, 이주배경학생 비율 (90%이상) 1개교 (70~90%) 6개교 (50~70%) 9개교 (30~50%) 55개교

- 다문화 밀집학교 71개교의 44%(31개교)가 **5개 시군구에 집중**

* (경기 안산) 8개교 (경기 시흥) 8 (서울 구로) 5 (서울 영등포) 5 (충남 아산) 5

- ⇨ 다문화 밀집학교의 **교육력 제고**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,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**예측시스템** 마련 중요

* 예) 특정지역 공단 형성 등으로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예상될 경우, 현재의 자녀 연령, 내국인과의 결혼·출생 등을 고려하여 인근학교 다문화 밀집도 예측 필요

4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못 미치는 학교 인프라

- (한국어학급) 학교는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·중도입국 학생 대상으로, **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*** 운영중

* 현재,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외국인·중도입국 학생이 5명 이상일 때, 설치를 권장

- 지난 4년간('19년대비 '23년), 전국의 한국어학급*은 빠른 속도로 늘어 **약 1.6배가 증가**하였음에도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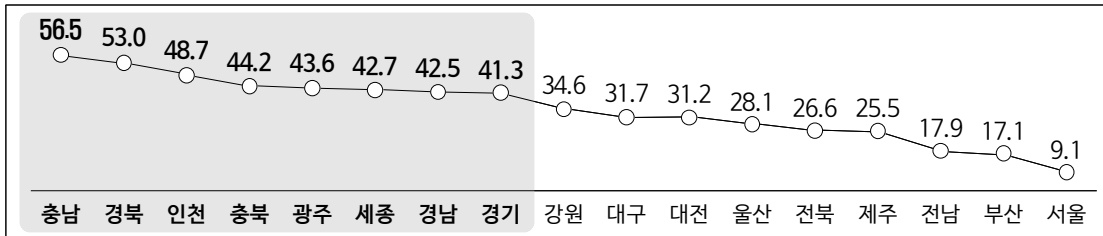
* 한국어학급 수(개) : ('19년) 326 → ('21년) 404 → ('23년) 527

- '23년 기준, 한국어학급 수용률은 전체 외국인·중도입국 학생 대비, **10.3%에 불과** (학급당 수용인원 10명 기준)

* '23년, 외국인·중도입국 학생 : 51,268명 / 한국어학급 : 527개

- ⇒ 최근 2년간, 외국인·중도입국 학생은 특정지역에서 급증하고 있어, **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확충정책 필요**

'21년 대비 '23년, 시도별 외국인·중도입국 학생 증가율(%) (교육부, '21년, '23년)



- (인력) '22년 기준, 학교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**다문화언어 강사는 689명**에 불과하여,

- 외국인·중도입국 학생기준으로 **강사 1인당 학생수 74명**, 전체 이주배경학생 기준 **강사 1인당 263명**을 담당하는 꼴

- 그 결과, 다문화가족 학생은 '학습지원'을 바라지만, 그 **수혜율은 더 하락**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

'18년과 '21년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비교 (여가부, '18년, '21년)

	학생 요구	학습지원 수혜율	한국어교육 수혜율	학교적응도
'18년	학습지원(1위)	39.0%	17.0%	4.33점
'21년	학습지원(1위)	34.8%	14.2%	4.23점

5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원 필요

※ '21학년도 학업중단률 비교 : <전체학생> (초) 0.58 (중) 0.54 (고) 1.55
<이주배경> (초) 0.68 (중) 0.78 (고) 2.05

- (한국어교육 프로그램) 현재,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(KSL)*은 **생활한국어에 초점**을 두고 있어,

*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(Korean as a second language)

-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어를 배워도, 정작 **교과학습을 위한 한국어능력은 여전히 부족해*** 학업에 어려움이 발생

* 예) '안녕하세요'는 배우지만,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에 필요한 용어는 미숙

- 아울러,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 등을 스스로 **방과후나 가정 내에서 복습**할 수 있는 **공신력있는 프로그램 부재**

* 시중의 한국어교재나 프로그램 등은 교과중심이 아닌 생활한국어 중심

현장교원, 업무담당자 등의 목소리 (교육부, '23년)

- 한국어교육과정(KSL)에 맞춘 교재 등을 활용해 한국어를 학습해도, 정작 교과 수업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한국어를 몰라서 수업에 적응이 힘듭니다.

- (경제적 측면) 다문화가족(외국인 제외)은 소득수준이 낮은 편으로, 학생의 **학업지속**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필요

* '22.4분기 월소득 200만원 미만가구 비중(%) : (전체) 19.8 vs. (다문화) 32.1

- 특히, 다문화가족 학생은 85.3%가 대학졸업까지 희망하고 있음에도, **대학진학률은 40.5%에 불과**한 것으로 나타나,

* '21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(%) : (국민전체) 71.5 vs. (다문화가족 학생) 40.5

-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**대학진학, 지속적인 학업유지** 지원을 위해 대학졸업시까지 학업장려금 등 제공 필요

현장교원, 업무담당자 등의 목소리 (교육부, '23년)

-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➔ 이주배경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 등 **맞춤형 교육지원** 및 학교의 **다문화 교육여건 개선** 등 필요

Ⅲ. 추진방향

1. 추진구조

비전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주배경학생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대 정책 방향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padding: 5px;"> 인식 전환 취약·소외계층 → 공동체 일원 </td> <td style="width: 50%; padding: 5px;"> 학교부담 경감 학교단위 대응 → 지역중심 지원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padding: 5px;"> 정주형 정책 단순 적응지원 → 우수인재 양성 </td> </tr> </table>	인식 전환 취약·소외계층 → 공동체 일원	학교부담 경감 학교단위 대응 → 지역중심 지원	정주형 정책 단순 적응지원 → 우수인재 양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식 전환 취약·소외계층 → 공동체 일원	학교부담 경감 학교단위 대응 → 지역중심 지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주형 정책 단순 적응지원 → 우수인재 양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대 추진 과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①</td> <td style="width: 60%;">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1) 지역거점 「한국어 예비과정」 운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2) 대학, 기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강화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3) 학교 내 한국어교육 인프라 확충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4) AI 기술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②</td> <td>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린 우수인재 양성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1) 이중언어 교육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2) 특화형 직업교육을 통한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3) 다양한 분야로의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 강화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③</td> <td>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1) 이주배경학생 친화적 인프라 확충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2)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3) 시도별·학교별 다문화 실태조사 추진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①	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			1) 지역거점 「한국어 예비과정」 운영			2) 대학, 기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강화			3) 학교 내 한국어교육 인프라 확충			4) AI 기술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		②	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린 우수인재 양성			1) 이중언어 교육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			2) 특화형 직업교육을 통한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			3) 다양한 분야로의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 강화		③	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			1) 이주배경학생 친화적 인프라 확충			2)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			3) 시도별·학교별 다문화 실태조사 추진	
①	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) 지역거점 「한국어 예비과정」 운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) 대학, 기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강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) 학교 내 한국어교육 인프라 확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) AI 기술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	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린 우수인재 양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) 이중언어 교육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) 특화형 직업교육을 통한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) 다양한 분야로의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 강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	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) 이주배경학생 친화적 인프라 확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)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) 시도별·학교별 다문화 실태조사 추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. 비전과 3대 정책방향

① 비전 : 비차별 + 능력에 따른 성장 지원

①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받도록 지원

* (UN아동권리협약) 제2조 자국의 관할 내 모든 아동(18세미만)이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 제28조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

- 차별없는 교육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**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**

* “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이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교육 강화 필요” (대통령말씀, '23.6.15.)

② 교육을 통해 능력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- 이주배경학생이 **자기 강점을 살려** 인재로 성장하고,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 지원

* “이주배경인, 어느 나라서 언제 왔든 능력껏 성공할 수 있어야” (대통령말씀, '23.3.7.)

② 3대 정책방향

① 인식전환 : **취약·소외계층** → **우리 공동체의 일원**

- 앞으로, 이주배경 있는 학생을 뒤쳐진 대상이 아니라, 우리사회의 **다양성·포용성을 높이는 구성원**으로 인식

② 학교부담 경감 : **학교단위 대응** → **지역중심 지원**

- 앞으로, 다문화 교육정책은 학교·교원이 개별적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로서, **정책추진의 구심점을 학교에서 지역으로 이동**

③ 정주형 정책 : **단순 적응지원** → **우수인재 양성**

- 앞으로, 다문화 교육정책을 기초생활한국어 수준의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이주배경 있는 학생을 인재까지 키울 수 있는 **정주·정착형 정책**으로 추진

IV. 추진과제

1.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

◇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확대로 학교·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고, AI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추진

주요 추진과제

- 지역거점 「한국어 예비과정」 운영('24년말~, 40개기관 선정·운영)
- 지역대학 활용한 '대학 내 한국어 집중캠프' 확대('24년, 50개 학교)
- 다국어번역 기능을 지원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보급('25년~)

① 지역거점 「한국어 예비과정」 운영

○ 한국어능력이 교과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 대상으로, '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(3개월~1년)*' 운영('24년말~, 40개)

* 위탁교육 형태로, 원적교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 밖 기관에서 교육받고 출석인정 가능

- 교육지원청 산하에 한국어 예비과정 운영기관을 설치하고, **다문화 밀집학교**가 있는 지역('22년, 33개 시군구)부터 우선추진

* 필요시, 지역대학, 기관 등 활용가능한 지역자원 선정·운영

• (경주 한국어교육센터) 폐교를 활용, 위탁 한국어교육 과정(3개월) 운영

○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, **법적근거 마련** 추진*

* 다문화 교육정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의2 신설 추진 중 (현재,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·의결, '23.9.1.)

*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의 2 신설에 따른 「같은 법 시행령」 개정시, '한국어 예비과정'을 국가·지자체의 시책마련 의무에 포함하여 추진

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의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… (중략) …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2 대학, 기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강화

- 지역대학을 활용하여, 시도교육청-대학이 연계한 '대학 내 한국어 집중캠프' 확대('24년, 50개 초중고교)

*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내 '지역대학 연계형' 신설('24년, 50개교 → '27년, 150개교)

• (전남교육청-5개 지역대학 연계) 전남교육청은 동신대·목포대·목포해양대·초당대·세한대와 연계, 전문가 활용한 '한국어교육 방학 집중캠프' 운영

- 지역 가족센터를 활용, 취학전 및 초등학령기 대상, 읽기·쓰기·셈하기 등 기초학습 제공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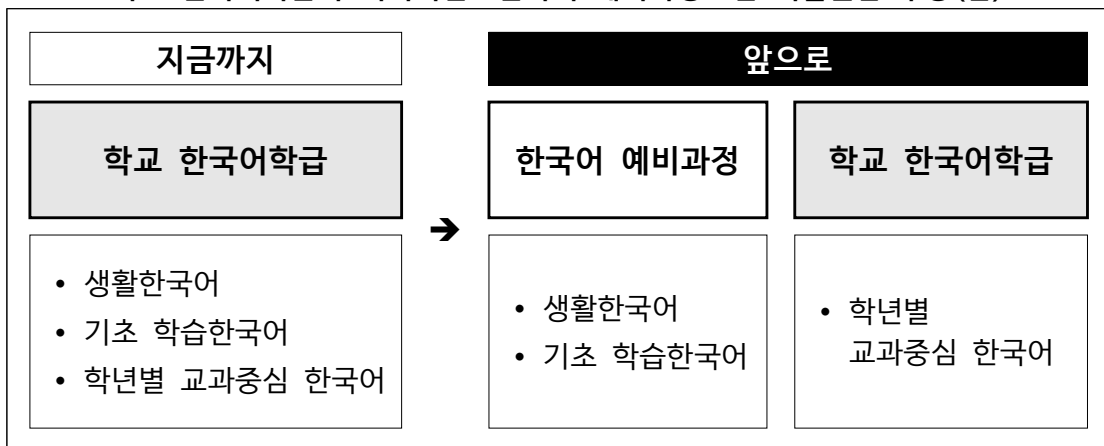
* 기초학습지원 가족센터 수 : ('22년) 90개소 → ('23년) 138개소 → 단계적 확대

3 학교 내 한국어교육 인프라 확충

- 학교 한국어학급은 지역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*하고, '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'과 역할분담·연계 추진

* 한국어학급 수(학급) : ('22년) 444 → ('23년) 527 → ('24년) 약 600

학교 한국어학급과 지역거점 「한국어 예비과정」 간 역할분담 구상(안)



- 한국어학급 지원인력 확대를 위해, **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*** (법무부), **결혼이민자 강사****(여가부) 등 연계·활용 지원

* (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) 2023년 기준, 전국 약 221명이 대학, 공공기관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에서 활동하며, 한국어교육, 한국사회이해교육 등 제공 중

** (결혼이민자 강사) 2022년 기준, 전국 약 450명이 지역 가족센터에서 활동 중

- **인적역량** 강화를 위해, 한국어학급 **전담교원 직무연수**, 워크숍, 다문화언어 강사 **보수교육** 등 확대·내실화
 - *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한 전국단위 워크숍 기간 및 횟수 확대('24년~)
- **방과후·돌봄**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 다문화 특화형 **늘봄학교*** 운영 추진('24년, 30개교)
 - * 에듀케어를 활용, 이주배경 초등저학년 학생 맞춤형 한국어강좌 등 운영
- **유치원**의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한국어 말하기 프로그램 및 **심리·정서지원** 프로그램 내실화를 지원('24년, 300개원)
 - * 유아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(「유아교육법」 개정 추진)
- **특수학교(급)** 지원을 통해, 장애유형·정도별 다문화 맞춤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('24년~, 10개교내외 시범운영)
 - * 특수교육대상자 중 이주배경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, 장애별 지원대상 추계 병행

4] AI 기술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

- AI 디지털교과서*에 **다국어번역** 기능을 지원하여, 이주배경학생이 **한국어와 교과학습을 병행**할 수 있는 여건 조성
 - * ('25년) 수학·영어·정보·국어(특수교육) 교과 우선도입 → ('28년까지) 단계적 확대
- AI 기반 한국어교육과정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개발·운영하여, 학생의 한국어 **성취과정 및 강점·약점** 등 분석 제공
 - * 기존의 한국어능력 진단·보정 시스템과 통합하여 단일플랫폼을 구축(KERIS)
 - **교과학습용 한국어 온라인콘텐츠*** 신규개발·탑재('25년~)
 - * 교과학습용 한국어 어휘발굴 및 교수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('24년)
- **한국어학급, 방과후과정** 등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한국어교육 시간에는 **검증된** 한국어교육 AI 프로그램 활용을 지원
 - * 예) 관련 콘텐츠를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각급학교에 안내·연결

• (공공기관 세종학당재단의 '세종학당 AI 한국어선생님') 교재형 독해 학습콘텐츠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·듣기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

2. 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린 우수인재 양성

◇ **글로벌 우수인재**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고, 학생 스스로 자기 강점을 살린 성장경로를 설계할 수 있게 지원

주요 추진과제

- 대학졸업시까지 지원하는 **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금** 신설·운영('24년~)
- 이중언어 등 **다문화 강점개발 교육부 정책학교** 지정·운영('24년, 200개교)
- **다문화 특화 직업계고 모델** 발굴·확산('24년, 10개교)
- **지역대학생 활용 멘토링** 확대(멘토수 : '23년, 4,000명 → '24년, 8,000명)

1] 이중언어 교육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

- **이중언어 등 강점**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하여, 대학 졸업시까지 지원하는 '**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**' 신설('24년~)
 - * 저소득층 중 선발하고,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매월 학업장려금 대폭지원(약 100~200명)
 - 장학생을 대상으로 **글로벌 우수인재 DB**를 구축하여, 취업 연계, 국제교류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 추진
- 이중언어, 외국문화이해 등 **다문화 맞춤형** 교육을 제공하는 **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*** 운영('24년, 교육부 지정 200개교)
 -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, 해당학교의 **모든 학생이 이중언어 학습**,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**이중언어 등 외국어교육에 강점**을 가진 학교로 운영
 - 방학 등을 활용한 **해외방문 프로그램**, 지역대학을 활용한 이중언어 학습 집중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
- (세종교육청) 베트남 방문하여 문화체험 및 학생 간 교류 실시('23.7.)
- (전남교육청) 베트남, 중국 등 방문하여 언어·역사학습 추진('23.하반기)

- **미취학·초등학령기 아동**의 이중언어 능력향상을 위해, 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**가족센터의 이중언어 지원 확대**

* '23년 기준, 전국 가족센터에는 이중언어코치 210명 활동중

2 특화형 직업교육을 통한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

- 다문화 맞춤형 직업교육(한국어교육, 외국어수업·교재 등 활용)을 제공하는 '**다문화 특화 직업계고***' 모델 발굴·확산

* 다문화 특화 직업계고 : ('24년) 10개교 → ('27년 목표) 20개교

- 직업계고에서 **내국인 및 외국인학생이 함께** 직업교육을 받고 **글로벌 기술인재**로 성장

- **전문대학**을 활용한 다문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*하고, **시도교육청-대학 연계 우수사례** 지속 확대

* 다문화 정책학교 중 '지역대학 연계형' 활용('24년, 30개교 → '27년, 100개교)

- (인하공전-인천시교육청) 인하공전은 평생교육원을 활용하여, 다문화학생 맞춤형 코딩·드론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교육청은 수업료를 지원

3 다양한 분야로의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 강화

- **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이 멘토**가 되어, 진로상담, 학습지원 등을 제공하고, 학생 세대 간 교류기회 확대

* 대학생 멘토링(멘토 수) : ('23년) 4,000명 → ('24년) 8,000명

* 특히, 이주배경이 있는 대학생을 멘토로 적극활용 추진

- 이주배경학생 스스로 **다양한 성장경로**를 설계할 수 있도록, **진로체험, 진로콘서트** 등 진로교육 확대·다양화*

* 다문화 진로체험처 발굴 확대 및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콘서트 등 추진

- (2023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콘서트) 예술(전주), 과학(아산), 해양(부산), 미래농업(원주), 신산업(서울) 등 지역별 다양한 주제의 진로콘서트 개최

3.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

◇ 다문화 밀집학교 인프라를 확충하고, 지역중심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 학교의 사전준비를 위한 통계기반 마련

주요 추진과제

- 다문화 밀집학교의 인프라 확충 집중지원('24년, 71개교 이상)
- 교육지원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학교부담 경감('24년, 5개 시범운영)
- 추계를 포함한 시도별·학교별 다문화 실태조사 추진('25년, 분석 → '26년, 발표)

① 이주배경학생 친화적 인프라 확충

- 다문화 밀집학교*를 대상으로, △한국어학급 △지원인력 △방과후과정 등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 지원('24년~)

* 재학생 100명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이 30%이상인 학교('22년, 71개교)

다문화 밀집학교 인프라 확충(안)

구분	일반학교	다문화 밀집학교
한국어학급	필요시*, 설치 권장 * 한국어교육 필요한 외국인·중도입국학생 5명이상일 때	설치 적극지원 * 학교시설 등 부족시, 위탁형태의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설치 등 추진
지원인력 등	-	한국어학급당 1명 배치지원 * 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, 결혼이민자 강사, 퇴직교원 등 연계·활동 적극지원
방과후과정	-	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지원

-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해, 학생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예·체능프로그램 확대, 영화·연극동아리 활성화 등 지원

* 학교는 학교자율시간(2022 개정 교육과정), 창의적체험활동, 방과후과정 등 활용

- 다문화 밀집학교의 우수한 상호존중 사례 등을 활용해,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개발·전국 확산 추진('25년~)

* 모든학생(2시간)·교원(15시간) 대상으로 실시중인 '다문화 이해교육' 내실화 등에 활용

- 이주배경학생·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·확대하여, 가족단위 교류기회 확대, 심리·정서 등 지원

- 지역 가족센터와 연계하여, 정서·진로상담 등 지원

* 다문화가족 청소년기 정서·진로상담 확대('23년, 113개소 → 단계적 확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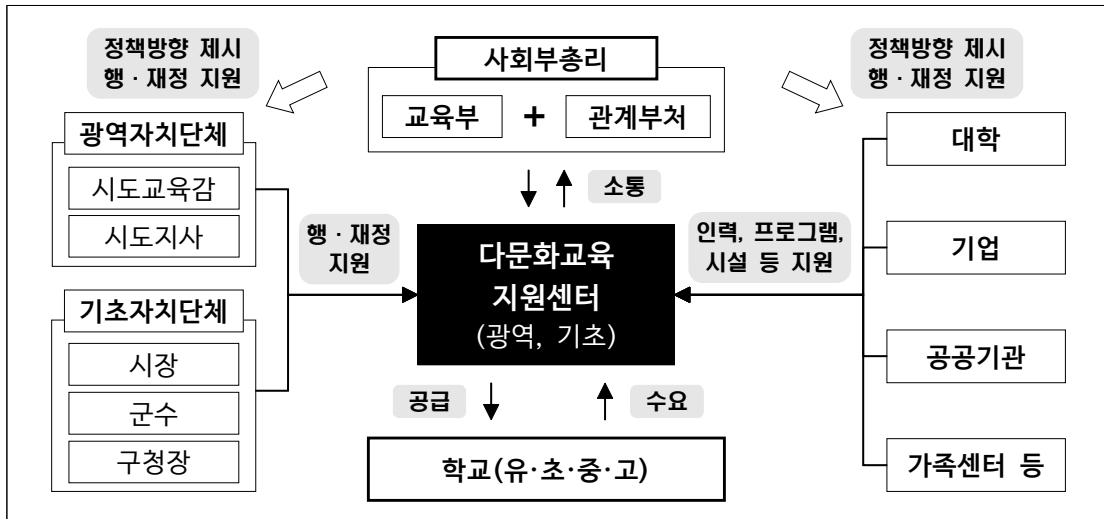
2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

-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지역('22년, 33개 시군구)은 교육 지원청에 **다문화교육지원센터** 설치·운영('24년, 5개 시범운영)
 - * ('24년) 공모를 통해 5개내외 시범운영 → ('25년) 전체 다문화 밀집학교 지역으로 확산
 - * '23년 기준,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총 17개 운영중(각 시도교육청별 1개)

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의2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... (중략) ... **다문화교육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**

-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**다문화 교육정책의 허브**로 역할 강화
 -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(프로그램, 인력 등)과 학교 간 **매칭** 지원, **학부모교육** 실시, **수업콘텐츠·학습자료** 등 제공

지역의 다문화 교육정책 허브로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상(안)



- 지역 **가족센터**와 연계·협력하여, 부처별 **정책정보, 프로그램** 등을 공유하고, **각 전달체계를** 통해 지역내 확산
 - * 예) 교육부 학습콘텐츠 등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→ 가족센터 통해 지역사회 전파 등

3 시도별·학교별 다문화 실태조사 추진

- 학교가 다문화 밀집대비 인프라 등을 **사전에** 구축할 수 있도록, **장래추계를 포함한 실태조사** 추진('26년 발표)
 - * 통계청(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민 인구전망), 행안부(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)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, 교육부에서 다문화 학생 실태조사 및 장래추계 실시
 - * ('24년) 정책연구 및 모델개발 → ('25년) 조사·분석실시 → ('26년) 발표

V. 추진체계

1. 법적기반 강화

○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**주요과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, 안정·지속적인 정책추진 환경 구축**

* 다문화 교육정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의2 신설 추진 중 (현재,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·의결, '23.9.1.)

* 유아단계 다문화 교육정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「유아교육법」 개정 추진

다문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의2 신설내용

- ① (국가·지자체 의무) 다문화 교육정책에 필요한 시책마련 의무
- ② (정책대상 범위) 다문화가족 구성원(내국인) + 입학예정·재학중 외국인
- ③ (교육부장관·교육감 권리)
 - 1) 교육부장관의 다문화 교육 실태조사 실시권
 - 2) 교육감의 한국어학급 등 특별학급 설치·운영권
 - 3)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특별학급에 대한 필요경비 및 인력지원권
 - 4)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·운영권/지정·위탁권
- ④ (학교장 의무) 1)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2) 다양성 존중 3)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환경 조성 노력할 의무

2. 소요예산(안)

○ '24년, **1,014억원** 소요(정부안)

* 일반회계 314억원, 특별교부금 350억원, 보통교부금 350억원

○ '24~'27년까지, **교부금 3,110억원** 소요예상

* 특별교부금 1,555억원, 보통교부금 1,555억원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계
계	700	750	804	856	3,110
특별교부금	350	375	402	428	1,555
보통교부금	350	375	402	428	1,555

* 보통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1:1 매칭으로 지원한다고 가정

* 소요예산은 추계액으로 실제예산은 당시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3. 추진주체별 역할

-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, 교육부, 시도교육청,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, 추진주체 간 연계·협력 및 소통강화

정책추진 흐름도 및 추진주체별 역할

추진주체	역할
교육부	<p>(계획 및 방향수립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주배경학생 지원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 수립 <p>(통계관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주배경학생 실태조사, 다문화 밀집지역 예측·안내 <p>(부처 간 협력 및 교육자원 관리·지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계부처 협력 • 전국단위 교육자원 발굴 및 교육청 연계 • 지역 간 교육격차 파악 및 시도교육청 행·재정지원
시도교육청	<p>(시행계획 수립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도교육청별 시행계획 수립 <p>(지역 내 교육자원 관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대학, 기관, 기업 등 교육자원과 학교 연결 •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• 수업콘텐츠·학습자료 등 개발
교육지원청	<p>(학교 업무부담 경감 지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통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•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운영 • 학부모교육 및 학생·학부모 상담 등 지원 •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, 콘텐츠, 자료 등 제공 • 관내 학교 행·재정지원 <p>(지역 내 인프라 및 정보제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어 수준별 교육기관 안내·제공 • 다문화 교육 우수학교 발굴·공유
학교	<p>(학교 내 인프라 구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어학급 설치·운영, 방과후과정 개설·운영 등 <p>(차별없는 교육, 강점 특화 프로그램 운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생 맞춤형 한국어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제공 <p>(다양성 존중문화 조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양한 문화를 상호존중하는 학교환경 조성

4. 향후 추진일정

- 「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」의 과제별 세부안 수립을 위한 **전문가 씽크탱크** 구성·운영('23.하반기)
- 지역거점 **「한국어 예비과정」** 운영기관 선정('24년)
- **글로벌 우수인재 장학생** 선발('24년)
- 교육지원청 단위 **다문화교육지원센터** 시범운영('24년)

추진과제별 일정(안)

과제	중점 추진시기					관계부처
	'23	'24	'25	'26	'27	
1. 차별없는 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						
①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운영						
• 운영기관 선정		✓				교육부, 시도교육청
•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	✓					
② 대학, 기관 등 지역자원 활용 한국어교육 강화						
• 지역대학 내 한국어 집중캠프		✓				교육부, 여가부, 시도교육청
• 기초학습지원 가족센터 확대		✓				
③ 학교 한국어교육 인프라 확충						
• 한국어학급 확대		✓				교육부, 법무부, 여가부, 시도교육청
• 한국어학급-「한국어 예비과정」 간 역할분담			✓			
• 다문화사회전문가·결혼이민자 강사 연계		✓				
• 전담교원 및 지원인력 역량강화		✓				
• 다문화 특화형 늘봄학교 운영 추진		✓				
• 유치원 다문화 맞춤형 프로그램 내실화		✓				
• 특수학교(급) 장애유형·정도별 프로그램 개발		✓				

④ AI 기술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						
• AI 디지털교과서 다국어번역 기능 지원			✓			교육부, 시도교육청
• 한국어교육과정 LMS 개발·활용		✓				
• 교과학습용 한국어 온라인콘텐츠 개발·탑재			✓			
• 기존 한국어교육 AI 프로그램 활용 지원		✓				

2. 학생 개인의 경쟁력을 살린 우수인재 양성

① 이중언어 교육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						
•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 신설		✓				교육부, 여가부, 시도교육청
• 글로벌 우수인재 DB 구축·지원				✓		
•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 운영		✓				
• 이중언어교실 운영 확대		✓				

② 특화형 직업교육을 통한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						
• 다문화 특화 직업계고 모델 발굴·확산		✓				교육부, 시도교육청
• 전문대학 활용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		✓				

③ 다양한 분야로의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 강화						
• 대학생 멘토링 확대		✓				교육부, 시도교육청
• 다문화 맞춤형 진로체험, 콘서트 확대	✓					

3.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

① 이주배경학생 친화적 인프라 확충						
• 집중적인 인프라 지원		✓				교육부, 여가부 시도교육청
• 학교 내 상호존중 문화조성 지원		✓				
•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개발·확산			✓			
• 정서·상담 등 지원 강화		✓				

②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						
• 기초 단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확대		✓				교육부, 여가부, 시도교육청
• 가족센터와 연계·협력 강화			✓			

③ 시도별·학교별 다문화밀집도 실태조사 추진						
• 관계부처 협력·정책연구 등 추진		✓				교육부, 행안부, 통계청 등
• 추계를 포함한 실태조사 발표				✓		

□ '14년~'23년간 이주배경학생 현황

(단위: 명)

연도	전체	내국인		외국인
		국내출생	중도입국	
'23년	181,178	129,910 (71.7%)	10,896 (6.0%)	40,372 (22.3%)
'22년	168,645	126,029 (74.7%)	9,938 (5.9%)	32,678 (19.4%)
'21년	160,058	122,095 (76.3%)	9,427 (5.9%)	28,536 (17.8%)
'20년	147,378	113,774 (77.2%)	9,151 (6.2%)	24,453 (16.6%)
'19년	137,225	108,069 (78.8%)	8,697 (6.3%)	20,459 (14.9%)
'18년	122,212	98,263 (80.4%)	8,320 (6.8%)	15,629 (12.8%)
'17년	109,387	89,314 (81.6%)	7,792 (7.1%)	12,281 (11.2%)
'16년	99,186	79,134 (79.8%)	7,418 (7.5%)	12,634 (12.7%)
'15년	82,536	68,099 (82.5%)	6,261 (7.6%)	8,176 (9.9%)
'14년	67,806	57,498 (84.8%)	5,602 (8.3%)	4,706 (6.9%)

□ '23년 기준, 부모출신 국적별 비율

(단위: 명, %)

국가	학생 수	비율
계	181,178	100.0
베트남	58,136	32.1
중국(한국계 제외)	44,587	24.6
필리핀	16,568	9.1
중국(한국계)	11,561	6.4
일본	7,633	4.2
기타	42,693	23.6

* 태국, 몽골, 캄보디아, 러시아, 미국, 대만, 인도네시아, 유럽, 아프리카, 중앙아시아, 중동 등

□ 다문화 밀집학교* 현황

* 재학생 100명 이상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% 이상인 학교

(단위: 개교)

연도	90% 이상	70% 이상 90% 미만	50% 이상 70% 미만	30% 이상 50% 미만	합계
'22년	1	6	9	55	71
'21년	1	5	7	42	55
'20년	1	5	6	33	45

□ 다문화 밀집학교 시도별 분포 현황

(단위: 개교)

시도	시군구
서울 (12)	구로 5, 영등포 4, 금천 2, 용산 1
부산 (1)	사상 1
대구 (6)	달성 3, 달서 2, 서구 1
인천 (2)	연수 2
광주 (2)	광산 2
경기 (31)	안산 8, 시흥 7, 평택 3, 수원 2, 부천 2, 오산 2, 가평 2, 성남 1, 김포 1, 안성 1, 동두천 1, 포천 1
충북 (2)	청주 1, 진천 1
충남 (7)	아산 5, 서산 1, 논산 1
전북 (1)	남원 1
전남 (1)	나주 1
경북 (3)	경주 2, 예천 1
경남 (3)	김해 2, 창원 1